발표 3

어머니 산전·후 우울이 아버지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으로 조절된 아버지 산후 우울의 매개효과

김다영(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Ⅰ. 서론

아버지들에게 양육은 단순히 자녀를 돌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사회적 요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가치를 지님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아버지 양육 참여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유아기에 실시된 것으로, 신생아 및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정미라 외, 2015). 신생아기 또는 영아기는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이 매우 급격한 시기이며, 배우자가 산후 회복 기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육아와 돌봄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Woodworth, Belsky, & Crnic, 1996). 또한, 어머니들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으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신나리, 2011).

실제로 임신과 출산에 동반된 심리적 어려움은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넘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어머니가 임신 시기에 나타내던 산전 우울이 산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자녀 돌봄과 발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해외 연구진들은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이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산전·후 우울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남편 또한 산후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24~50%에 달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배우자에게 나타내는 변화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Letourneau et al,. 2011). 즉,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므로 자녀 출생 전후의 어머니 우울과 아버지 양육 참여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아버지 산후 우울을 주목할 수 있는데, 아버지 산후 우울은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녀출산과 근접한 시기의 부모교육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ethna et al., 2015). 첫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교육참여가 보장되거나 어머니와 동일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동일한 양육관과 지식이 형성되어 부부간 우호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주고 받게 되며, 유대감 강화를 통해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자녀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은 산후 우울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의 어려움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관계에 긍정적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 아버지 산후 우울, 아버지 양육 참여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anel Study) 데이터를 활용해 총 1,200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기초조사, 생후1개월), 아버지 산후 우울(1차년도), 아버지 양육참여(1차년도), 부부동반 자녀양육교육(1차년도)을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인으로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정도(1차년도), 맞벌이 가구여부(1차년도), 저소득가구 여부(기초조사), 첫째아 출생 여부(기초조사), 어머니의 사전 교육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Ⅲ. 주요 연구결과

1.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 가정 검토

Muller, Judd와 Yzerbyt(2005)는 이를 위해 독립변인와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만약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는다면 조절된 매개효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산전·후 우울과 부부 동반 자녀 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B=.002, p>.05)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매개효과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과 아버지 양육 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산후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이 아버지의 산후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B*=.16, *p*<.001), 아버지 양육 참여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02, *p*<.001). 또한, 아버지 산후 우울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 *p*<.001).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토에서 총효과는 -.02이었으며, 직접효과는 -.02, 간접효과는 -.002이었다.

3. 조절효과

아버지 산후 우울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03, *p*<.001),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은 아버지 양육 참여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B*=.05, *p*<.01). 또한, 결정적으로 아버지 산후 우울과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도 아버지 양육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B*=.006, *p*<.05).

이어서 조절변인의 조건부 과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 단순 기울기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B*=.-.026, *p*<.001), 자녀 양육 교육 정도의 평균 집단(*B*=.-.018, *p*<.001)이거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집단(*B*=.-.009, *p*<.01) 모두에서 부모 산후 우울이 높을수록 아버지 양육 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절된 매개효과

산전·후 우울은 아버지 산후 우울에 정적 영향을 보였고(*B*=.16, *p*<.001), 아버지 양육 참여에는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B*=-.014, *p*<.01). 또한,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에 영향을 받은 아버지 산후 우울은 아버지 양육 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023, *p*<.001),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로 인한 아버지 산후 우울과 부부동반 교육정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아버지 양육 참여에 정적 영향을 보여(*B*=.006, *p*<.05) 교육적 효과로 인해 아버지 양육 참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의 매개지수가 .0009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0001, .0018].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효과를 나타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 정도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에서 [-.0062, -.0016], 평균수준에서 [-.0042, -.0011],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에서 [-.0030, -.0001]로 나타났다. 즉, 간접효과의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았고, 동일한 부호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호소하는 우울은 아버지 산후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과 아버지 양육 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산후 우울이 어머니의 산전·후과 아버지 양육 참여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녀 출산 이후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저해하는 어머니의 산전·후 우울과 아버지의 산후 우울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산후 우울이 아버지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동반 자녀 양육 교육의 유의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비슷한 산후 우울 수준을 보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수강한 경우가 많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을 우호적으로 인식하여 높은 참여를 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산후 우울을 앓고 있는 부모의 어려움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실천적인 지원과 교육 방향성에 긍정적인 지향점을 제공한다.

셋째, 어머니 산전·후 우울, 아버지 산후 우울, 아버지 양육 참여의 관계에서 부부가 함께 동반하여 자녀 양육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과 실천적 양육 참여의 관계를 견인할 수 있는 조절변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